

## 소식

### 2019학년도 단체교섭 곧 시작...임단협안 대의원회 심의 요청

법인의 정상화(정이사 파견), 대학 집행부 교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및 출범 등으로 미뤄졌던 2019학년도 단체교섭이 10월 중 시작된다. 대학은 지난 9월 10일경 공문으로 임금단체 협약안, 교섭위원 명단을 노조에 통보했으며, 노조는 규약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안을 25일 작성, 대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대학 측의 교섭위원은 이사장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총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등 총 7명이며 총장은 사무처장에 대표권을 재위임했다. 노조는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임·단협 위원 5명, 노사협의회 위원 7명으로 구성했다. 17대 노동조합의 2019년 단체협상의 기본 원칙은 지난해의 협약에서 퇴보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금협상안 등 세부내용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법인 이사장 상견례 및 간담회 가져



지난 18일 노조 집행부는 법인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박윤훈 이사장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상견례는 인근 식당에서 집행부 소개 및 이사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인 소속 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과 김병춘 사무국장 이 배석했다. 상견례 겸 오찬을 마치고 이사장 일행은 노조사무실을 방문, 회의실에서 학원 및 학교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는 △대학행정의 품질 유지 및 안정성과 미래성 담보를 강조하며 적정 인원의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할 것 △학령인구 급감 현실에 맞는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재학생 충원률 저조에 대한 엄밀한 경영 진단과 획기적 개선 △법인과 대학 간 직원교류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하며 법인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이사장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사회에서 논의, 검토하겠다”며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의 학원과 학교를 위한 제언을 주문하면서 “향후 노조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대화하자”고 밝혔다.

### 10월 조합원 祝생일자\_양력 기준/무순

강민아	우철봉	조우진	신순애	서영화
이기봉	신진희	김성완	박수영	김두원
여선	최영습	유진오		

## 10월 주요 사업 계획

일정	내용	비고
10. 4.	노동조합 회보 발간(10월호)	홍보부
10. 7.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0. 14.	한국노총 경산지역지부 대표자회의	위원장
10. 25.	신입조합원 및 집행부 연수	대상자
10. 29.	한국노총위원장 간담회 및 제3기 성평등 노동교실	위원장, 신청자
10. 30.	경북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한노총 경북본부 주관)	참가 신청자
예정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 상견례	양측 위원
예정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 실시	

## 오피니언

### 노동 귀족? 귀족노조는 없다

IMF 관리 체제 이후 만연한 ‘귀족노조’라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는 노동조합에 대한 극심한 혐오와 배척 이데올로기로 활용됐고, 당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양산된 다량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분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이용됐다. 정치, 자본, 언론 권력과 이들의 아류들은 굴지의 대공장 노동조합을 ‘1억원 연봉의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몰아세웠고 심지어 ‘극좌 빨갱이’로 낙인 찍었다. 대부분의 노조는 비난의 화살을 맞았고, 요즘도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이라는 표현만 나와도 귀족노조의 만행(?)으로 매도되기 일쑤다. 오늘날 200만을 넘긴 조직노동자의 시대에도 여전히 서구의 ‘노동 귀족’에서 연원한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은 유효하고 약자들의 연합체인 노동조합을 마치 사회악처럼 취급하는 용어로 쓰인다. 경영의 결정권을 지닌 권력들이 망가뜨린 국가 경제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들에게는 유용하면서 불온한 사회언어였다.

서구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 귀족’에서 비롯되어 뒤늦게 만들어진 이 표현은 노동자 조직 전반에도 침투하여 내재화된 현상이 발견된다. 권력들이 호명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지만, 노동자 스스로 귀족노조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시대에서나 지배계급의 사상(언어)이 지배적인 사상”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는다. 하지만 지배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관념에 사로잡힌 그 노동자에게 삶이 나아지는 것, 노동자도 귀족처럼 풍족하게 살면 어떠냐는 질문에는 선명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그의 확고한 현실과 욕망(의지)이 철저히 대립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노동자요, 욕망은 귀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욕망마저 지배권력화되어 있다는 뜻인데, 노예가 주인 격정하듯 혹은 자본가를 모방하는 소액의 주식투자자들의 심리구조와 유사하다는 말이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를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가 그랬듯 자본권력과 맞닿아 있으면서 소규모 공장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등 약자들과 연대하지 않고, 노동자 보편의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던, 관료적인 특수직무의 대기업 노동 귀족은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야근, 주말특근, 잔업 등 수당, 상여금을 통틀어 30년 만에 최고 연봉지점에 도착한 노쇠한 금속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와 연대하려는 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며 악의적 언어로 폄훼할 수는 없다. 식민지를 겪어오며 이중삼중의 수탈과 억압을 경험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인생의 황혼기를 보장할 만한 서구적 복지제도의 기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정점기 노동과 임금으로 보험성 담보를 마련하여 가족의 봉양과 양육, 본인의 노년과 질병마저 해결하며 자립적 삶을 영위해야 한다, 최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중병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과 조직을 걱정하는 대구대학교 조합원들은 가계가 넉넉해서, 귀족노조라서 날마다 출근하는 것이 아니다. 귀족은 중세시대 봉건적 착취자에 불과하다. 스스로든 권력이든 함부로 노동자와 노조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위원장>

## 정보

###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_2019. 10. 1. 현재

조합원(A)	휴직조합원(B)	비고(A-B)
195	5	190

### 전월 활동 동향

일정	내용	비고
9. 2.	주간회의	집행부
9. 6.	노조회보 2019년 9월호 발간	포털 게시
9. 10.	주간회의	집행부
9. 10.	성산복합문화공간 개관식 참석	위원장
9. 11.	조합원 추천인사 발송	포털 메일
9. 18.	주간회의	집행부
9. 18.	법인 이사장 상견례 및 간담회	집행부
9. 19.	2019학년도 예산조정위원회	사무국장
9. 24.	행정관리자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집행부
9. 25.	주간회의: 임·단협안 작성	집행부
9. 26.	인사위원회(서면회의): 포상 및 기타	위원장 등
9. 27.	인사위원회(서면회의): 전보 및 기타	위원장 등

# 게시판

## [고용노동부]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 우리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만큼 커졌어요!

- 1 출산전후 휴가급여**

2017년 150만원 → 2018년 160만원 → 2019년 18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7월부터) **신설**
- 2 배우자 출산휴가**

Before 유급 3일 → After 유급 10일

지원 없음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 3 육아휴직 급여**

아이 자라날 때

첫 3개월: 통상임금 40% 상한액: 월10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150만원

3개월 이후: 통상임금 40% 상한액: 월10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액: 월120만원
- 4 두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2017년 둘째 자녀 200만원 → 2018년 모든자녀 200만원 → 2019.1월 모든자녀 250만원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efore: 사용기간: 최대 1년, 통상임금 60%, '18.10월 통상임금 80%

2019.10월: 사용기간: 최대 2년, 하루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고용노동부

### 민원 신고 안내

본교에서 인권, 성희롱, 남녀차별, 괴롭힘, 갑질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위반 등 불법적,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분이나 이를 목격하신 분은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직제기구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도 노동조합이 동반해 드립니다.

☎ 053\_850\_5760~1    ✉ 면담신청: 위원장, 부위원장, 여성부장

### 조합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조합원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정보, 오피니언 제언, 노조 및 학교 관련 정책, 직거래 및 물품 양도 등의 각종 의견을 주시면 매월 제작되는 본 회보에 반영됩니다. 직거래 장터 및 각종 물품 나눔 마당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관련 정보를 홍보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부장: 053\_850\_5534

# 광고

## 2019 희망나눔바자회 물품기증 요청

본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나눔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빛나는 우리

2019 DU리브블런디어

### 2019 희망나눔바자회 물품 기증 요청

모두가 함께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을 나눠요!

한때는 소중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어쩔지 안 쓰게 되는 물건들... 차마 버리기는 아깝고, 방 한 칸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그 물건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드립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가정, 연구실,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DU리브블런디어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기증 가능: 생활용품, 주방용품, 사무용품,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판매 가능한 모든 물품 (파손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한 물품, 오래된 전공 서적 등은 제외)

접수기간: 9. 27.(금) ~ 10. 8.(화) 까지

문의처: 경산캠퍼스 성산출 강당앞 DU자원봉사센터 (☎053-850-5631~2)

[ 연락 주시면 DU리브블런디어 봉사자들이 방문합니다. ]

바자회의 수익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환경의 재학생을 위한 나눔 사업에 쓰입니다.

서민·지역의정당 대구대학교 자원봉사센터

### 대구 전태일 기념관 건립 시민모금 운동

대구에는 전태일의 고향입니다. 중구 남산동에는 전태일 열사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말한 바로 그 집입니다. 노동자의 영원한 벗, 전태일 열사의 대구 기념관 건립 시민모금에 조합원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전태일의 친구들 홈페이지 <http://dgchuntaeil.org>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태일.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라는 이름의 청년 노동자. 1948년 9월 28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둘의 젊은으로 몸을 불살랐다. 그의 죽음을 사람들은 '인간선언'이라 부른다.

후원계좌를 통한 후원

농협 301-0253-2777-51 (예금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대구 전태일 기념관 건립 시민모금 운동 계좌

대구은행 504-10-351220-9 (예금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